

# 마늘값 최대 2배까지 뛰어올라

### 최근 거래 깎마늘 1kg당 1만1500원... 햇마늘 출하늘면안정될 듯

양념류인 마늘가격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지면서 밥상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양동 시장에서 최근 거래된 깎마늘 1kg 가격은 1년 전 6000원에서 2배가량 오른 1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마늘가격은 2주전보다는 45.9% 전년 대비 91.6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aT는 마늘가격 상승요인을 장기간 저장에 따른 감모율 증가와 재고량 감소로 분석하고 있다.

마늘 가격은 내달 초부터 지역별로 햇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공급물량 증가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체스류는 제철을 맞아 각 지역별로 출하가 늘어나면서 공급물량 증가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는 2주전 포기당 4500원에서 4300원으로 가격이 4.4% 하락했다.

무도 개당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가격이 20% 내렸다.

양파는 작황호전과 제철 출하기를 맞아 1kg 한 마에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격은 작년과 동일하다.

과일류인 사과·배 등은 석가탄신일 이후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전문 취급상인들의 출하조절로 보합세를 띠고 있다.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일류는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반입물량

증가로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다.

방울토마토는 작년 같은 기간 1kg 기준 6000원에 거래 되던 것이 4000원으로 가격이 33.33% 하락했다. 수박 참외 등 제철과일류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소비가 분산된데 따른다.

aT관계자는 "기온상승과 적절한 일조로 출하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상순까지 맑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어 공급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정의 달 5월이 지나면서 각 가정에서 씹음을 즐기는 시기를 맞아 외식 수요 감소 등 매기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뉴질랜드 대표 식품 한자리에**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피이어룸에서 한-뉴질랜드 간 FTA 발효에 따라 뉴질랜드 푸드 위크의 일환으로 열린 '뉴질랜드 푸드캐넥션 2016'에서 뉴질랜드의 대표 식품기업 30곳이 참가하여 유제품, 육류, 수산물, 와인, 수제맥주 등 다양한 식자재를 관계자들이 함께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 TV홈쇼핑 빅데이터 평판조사 1위 현대

TV홈쇼핑 빅데이터 평판조사 결과 현대홈쇼핑이 1위를 롯데홈쇼핑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6개 홈쇼핑 브랜드에 대해 4월22일부터 5월23일까지의 홈쇼핑 브랜드 빅데이터 676만28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4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참여지수 89만8483점, 소용지수 27만8735점, 소셜지수 32만5252점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49만7470점을 나타냈다.

롯데홈쇼핑은 참여지수 86만7157점, 소용지수 34만5150점, 소셜지수 26만2022점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46만8609점을 보였다.

CS홈쇼핑의 브랜드평판지수는 139만2791점으로, 7.02% 상승했고,

CI홈쇼핑은 112만3942점으로 6.19% 하락했다.

홈쇼핑은 5.22% 상승한 70만 9378점, NS홈쇼핑은 브랜드평판지수 6.66% 상승한 56만8839점을 나타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브랜드평판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구 소장은 "롯데홈쇼핑에게 방송 중단 제재가 내려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롯데홈쇼핑 브랜드평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여름 성큼 '다이어트 제품' 불티나

곧 여름이다. 겨우내 두터운 옷에 감춰졌던 살을 빼고 휴가철 몸짱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이어트족이 늘고 있다. 식품업계 역시 다이어트족들의 수요에 맞춰 맞춤형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매년 이맘 때면 식음료업계에 '칼로리 다룬' 바람이 불지만 올해는 칼로리와 맛,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제품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대상NF는 24일 칼로리가 낮아 여름 다이어트에 제격인 '종가집 연두부'를 출시했다. 콩의 영양이 그대로 담긴 연두부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데다 가볍고 부드러운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 250g 기준 열량이 125칼로리다.

종가집 M2집 박병관 차장은 "식사 대응 또는 다이어트식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여성은 물론 남성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CI제일제당의 다이어트 브랜드 '팻다운'은 스틱형 분말 제품 '팻다운 북'을 출시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물 없이도 가볍게 즐기면서 기본 전환은 물론 체지방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자몽맛의 분말 형태로 돼 있어 출근길·쇼핑·가벼운 운동 중 생활 속에서 하루 두 번 1포씩 한 입에 가볍게 털어 먹거나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다.

주성분은 HCA(가르시니아카모보치 추출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체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2와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가미돼 활력 있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는다.

/인진수 기자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최저 연 1.6%로 6개월 한시적 운영

이달 30일부터 6개월 간 디딤돌 생애최초구입자 대출을 연 1%대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 등 모든 기금 전세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낮아지고 신용가구는 최저 1.8%에 이용 가능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의

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 연간 36만원, 20년 기준은 72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세대주 및 세대원 등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을 때 신청 가능한 제도다. 현재 근로자, 서민 및 디딤돌대출을 생애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엔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진수 기자

### 전북은행, 1+1 협약 보증대출 출시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우수기술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출연하는, '1+1 협약 보증대출' 상품을 지난 28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도내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 보증서를 담보로한 대출과 보증서 담보대출 금액의 10%이상의 금액을 'TCB 기술평가서'를 활용해 신용대출 받으므로써 보증서 담보와 신용대출의 '1+1'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복합형 금융상품이다.

전북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1+1 협약 보증대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어 신용보증서 보증료를 매년 0.2%씩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정영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